

잘 나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울~광주 3개월만에 5만1969명 이용
평균 탑승률 71%...노선·차량 확대 검토

영화나 방송을 보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평균 탑승률 70%대를 보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도입은 1992년 우등 고속버스가 운행된 뒤 24년 만에 큰 변화였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5일 개통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3개월간 누적 탑승객은 총 8만552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부산 노선이 3만3557명, 서울~광주 노선이 5만1969명을 각각 태웠다.

평균 탑승률은 서울~부산 73.3%, 서울~광주 68.3%로 총 70.8%를 기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누적 탑승객은 3만449명(부산 1만1823명·광주 1만 8626명), 탑승률은 73.6%(부산 75.7%·광주 71.5%)로 조사됐다.

1월에는 누적 탑승객이 2만7256명(부산 1만606명·광주 1만6650명), 탑승률이 65.9%(부산 67.9%·광주 63.9%)로 전월보다 다소 줄었다.

기존 우등 고속버스와 비교해도 탑승률이 최대 1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25일까지 서울~부산 노선의 탑승률은 프리미엄 버스가 79%로 우등버스(63%)와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광주 노선은 프리미엄 버스와 우등버스가 각각 77%, 72%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고속버스 업계는 아직 개통 초기여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고속철도와 경쟁할만한 핵심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등 고속버스보다 넓고 안락한 좌석은 물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S)과 차선 이탈 경보장치(LD-

WS) 등 최첨단 안전장치 탑재,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업계의 이러한 대책은 최근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하고 경부·호남선 KTX를 서울역과 용산역 중 원하는 역에서 골라 탈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SRT는 하루 평균 이용객 4만명을 넘기며 개통 5주 만에 목표 인원의 85%를 달성했다. SRT와 KTX를 합한 전체 고속철도 이용객은 개통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2만5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KTX의 경우 SRT와 경쟁하지 않는 경전·전라·동해선의 승객도 전년보다 9758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고속버스 업계는 구체적인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SRT 개통 이후 승객이 줄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고급화 전략으로 승객 이탈을 막는다는 업계 의견에 공감하면서 프리미엄 버스 운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버스로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는 고속버스 업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7월께 노선이나 차량 확대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서울~광주 1일 20회, 서울~부산 1일 12회 각각 운행되고 있다. 운행요금은 서울~광주 3만3900원, 서울~부산 4만4400원이다. 두 노선의 우등버스(2만6100원·3만4200원)보다는 1.3배가량 비싸지만, KTX(5만9800원·4만7100원)보다는 저렴하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 주택 인허가 폭증...전국의 5배

1월 2591가구로 전년보다 564% 늘어...미분양 증가 속 공급과잉 우려

지난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과 달리 광주는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꾸준히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로 돌아서 주택 과잉 공급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전망도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의 광주 지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월대비 564.4% 늘어난 259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년 평균(2012~2016년) 인허가 물량인 544가구보다도 376.3%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지역별로 신규 공급물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와 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인 울산(140가구·-94.9%), 충남(532가구·-73.6%), 경남(1736가구·-59.9%), 대전(232가구·-47.2%), 전북(1164가구·-46.8%), 전남(529가구·-20.9%)과도 대조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주택준공 실적 역시 173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 확대됐으며 5년 평균 실적(866가구)보다도 112.0% 많아졌다.

하지만 착공 실적은 전월대비 59.4% 줄어든 914가구에 그쳤으며 분양(승인)은 같은 기간 462가구 손감했다.

이처럼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분양주택 물량이 다시 증가했다.

광주의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0월(877가구), 11월(691가구), 12월(554가구) 등 매월 줄어들었으나 1월 들어 전월대비 264가구(47.7%) 늘어나면서 818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최고 상승 폭으로 광주에 이어 울산(41.8%), 제주(30.3%), 인천(19.3%), 경기(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227가구)보다 5.7%(13가구) 줄어든 214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 9898가구로 전년동월대비 16.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8177가구, 지방은 2만1181가구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21.0%, 11.2%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다자녀가정 ‘희망공부방’ 선정



가계대출 옥죄니 전세대출도 반토막

1월 증가액 4580억...2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으나 올해들어서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주택 담보대출이 1월 들어 큰 폭으로 내린 영향이 커 보인다.

1월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1월 전세대출 잔액은 34조 5065억원으로 작년 말 34조485억원에 비해 4580억원 늘었다.

월별 증가액 기준으로는 2015년 6월 2936억원이 증가한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저치다. 또 전월인 2016년 12월 증가분 8202억원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월에 견줘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작년 월평균 증가액(8654억원)에 견줘서도 절반(52.9%) 수준이며 작년 동기 증가액(5417억원)에 비해서도 15%(837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3849억원 늘었다.

그러나 1월 들어 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전세대출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데다 신한은행은 전월에 견줘 468억원이 감소했다.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해 줄어든 건 작년 6월 이후 반년만이다.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한 건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득 심사가 간간해지면서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계절적 영향도 있다. 1월은 이삿짐 비수기여서 거래가 전월대비 줄었다.

전셋값도 오름세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1월에만 102만원이 올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2412만원이나 가격이 뛰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손정락 연구위원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분위기,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전세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본격적인 이사철인 3월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 28일 광주 북구 본충동에 위치한 다자녀가정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25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25점으로 선정된 박 모군(12살)은 어머니와 함께 4남매 다자녀가정의 아들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책을 좋아하는 박 모군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초등학생용 도서를 선물하고, 공부방에 책장과 책상 그리고 신화기를 맞춰 최신행 노트북으로 공부방을 꾸며주었다.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 직원들은 과일과 생필품을 준비해 4남매와 함께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은행 정순자 부행장은 “박 군과 같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책과 공부를 좋아하는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다음달부터...3만3천여명 혜택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고,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문기성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